

건강과 웰빙(well-being)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신문이나 매체는 식품과 관련된 분야를 다루지 않는 곳이 없다. 먹거리는 이런 관심의 가장 중심에 있으며 따라서 소비자의 기호도 변화에 따라 그 품질의 안정성에 대한 요구도 크게 증가했다.

요즘 방송에 보도되는 조류독감(AI: Avian Influenza)의 주인공인 닭고기는 1996년 미국과 러시아의 '닭고기 전염'을 유발시키면서 미국으로부터 러시아 검역 담당자들의 연례 시찰과 함께 특별품질관리 규정을 이끌어냈다.

미국산 쇠고기에서 나온 햄토독에 대한 보도나 중국산 수입식품의 위해물질 포함여부와 관련된 안전성 논란 등 먹거리와 관련된 보도는 명절 무렵에는 의례히 등장하는 단골손님이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이 있으며 현재까지의 과학과 식품산업 기술의 발달해가는 과정을 유추해 볼 때 미래에는 어떤 위험인자가 등장할 지 짐작하기 어렵다. 과연 우리는 먹을거리 안전성을 어느 정도 보장 받을 수 있을까? 답은 소비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실천해야 하며 국가에서는 제도적 장치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닐까 싶다.

식품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것은 비단 이들 유명세를 탄 병원급 뿐 아니라 식품 생산단계에서 사용되는 농약이나 제초제



불자 세상보기

이인숙
위덕대 외식산업학부 교수

우리의 식탁은 안전한가?

제조 시 첨가되는 식품첨가물, 기타 환경오염물질, 부적절한 조리방법으로 인한 오염, 그리고 식품을 섭취한 후 식품의 성분이 분해과정을 거치면서 생성된 물질의 반응으로 인한 경우 등 그 내용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성이 무너질 수 있으므로 식품안전성은 재료를 재배하고 가공하여 구입 또는 조리하여 섭취하는 모든 단계에서 일차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사항인 것이다.

식품위생감시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해진 규정대로 준수하는지 확인, 관리, 지도하는 체계

이며, 학교급식을 비롯한 단체급식을 하는 곳은 물론 식품 가공 및 제조 업체, 고급레스토랑이나 호텔, 병원, 대형 외식업체까지 실천하는 HACCP 시스템이나 소비자 식품리플레드 등이 모두 이에 해당된다.

식품(음식)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에서도 식품위생학은 필수 과목이며 조리실에서는 조리 시 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WHO의 기본적인 권장규칙을 걸어놓고 있다. 일본은 2003년 건강증진법이나 식품안전기본법을 신규로 시행하여 식품위생법과 함께 식품의 안

전·안심에 대한 미생물검사, 약효성분배합금지, 잔류농약, 환경호르몬과 항생물질에 대한 기준을 재조정하였고 그 실행에 분석법 등의 간이·신속화를 위한 기술적 경제적인 방안을 수립하였다. 식품영양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생각 하는 식품안전성은 학교급식과 함께 영양교육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된다. 학교급식은 시설과 식재료의 선택이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안전성 확보의 걸림돌로 보고되고 있고 영양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올바른 식생활,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올바른 내용의 웹사이트를 전문가의 손으로 개설하였다. 언론매체에서 이들 웹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유치원, 학교, 보건소, 또는 노인대학 등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서는 모두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내용을 우선하여 항상 다룬다면 그 중요성을 가나나 ABC처럼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식탁의 안전이 국가 발전과 미래를 책임진다고 말하면 필자의 아집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부디 우리 국민이 보호받고 있다는 신뢰감이 드는 식품안전성 정책이 시급한 과제의 하나로 인식하여 국가차원에서 지원이 일원화되어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움직임에 참고로 하여 신속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실

'한국불교의 미래는 군포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고 군장병 과반수 불자화를 목표로 출범했던 조계종 군포교구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세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11월 30일 서울 종로 하림각에서 열린 제38주년 군승의날 기념법회에서 조계종 군포교구 주지 일연 스님은 "매년 8만 명이 수계를 받고 있을 정도로 군포교는 한국 불교의 초석을 쌓고 있다"며 "지난 1년동안 많은 일을 했지만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감회를 밝혔다.

우리는 지난 1년간 군포교구의 활동을 조종하게 주시해 왔다. 종단정체성 확립을 위해 종정스님의 진영과 교사의 군사화 현수, 교구운영 제도화로 군사화 현상정리, 온라인 전산망 구축, 군 신도회 활성화 등 군포교구가 1년간 보여준 활동과 성과는 군포교구 출범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불사였는가를 새삼 느끼게 한다.

군포교 성공의 조건들

그러나 이제 막 돌을 지낸 군포교구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펴나가는 일은 정작 이제부터다. 군포교구가 앞으로 산적한 과제를 풀어나가려면 가장 먼저 구성원들의 실행과 단합이 탄탄해야 한다. 그리고 교구의 성패가 군법사 한사람 한사람의 어깨에 달려 있다는 사명감도 충만해야 한다.

군포교를 위한 시스템과 관련한 숙제도 많다. 군법사 자질 함양, 장병 심성 프로그램 개발, 비구니스님들과 천태종 등의 군법사 파송 문제 등도 해결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군포교의 숙제를 군포교구에만 맡기기에선 너무나 현실적 한계가 많다.

우선 턱없이 모자란 재원을 확충해나가는 데는 교구 구성원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종단과 불교계 전체의 관심과 성원이 반드시 따라주어야 한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군포교 후일 만민동참만 해도 그렇다. 그냥 군법사들의 탁발행사로 여기면 안된다. 그것은 한국불교의 미래에 대한 동참여부를 묻는 행사나 마찬가지다. 군포교의 명암이 지금 우리 전체 불자들에게 달려 있다. 왜냐하면 군포교는 청년불교의 마지막 보루이자 늙어가는 한국불교를 다시 세워줄 버팀목임이 명명백백하기 때문이다.

■ 도수점영대 회장



이렇게 들었다 대통령의 발언

국왕이여, 몸소 백성들에게 이로운을 가르쳐 보아라. 왕의 부패한 관료들 때문에 나라의 재산을 탕진하고 나라의 위신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라. 일을 급히 서두르지 마라. 그리고 급히 서두르게 하지도 마라. <자타카>

노무현 대통령이 11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효숙 현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철저히 검토한 것은 굴복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입기를 다 마치지 않은 첫 번째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위기 때마다 승부사 기질을 보여온 노 대통령 스스로 '굴복'이라는 표현을 써 국정 운영에 손발이 묶인 것에 대한 참담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대통령의 발언의 진의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실제로 대통령직 사퇴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내놓으며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

정작 민생 법안은 국회에서 잠깐 있고 아파트값 상승으로 서민들이 점점 더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지금 정치권마저 '대통령 하야'를 이야기하며 온나라를 뒤 흔들고 있으니 우리나라의 미래가 불안하기만 하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대통령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리더십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최고 지도자로서 서민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아파트 한 채 가지는 것이 최대 목표가 되어버린 이시대의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정책을 만들어 주길 간절히 바란다.

국가의 위기나 멸망의 원인은 함부로 시류에 영합하려는 데에 있다. 시류의 평판이 좋다고 해서 여기에 귀기울이게 되면 결국 참된 현자를 얻을 수 없다. 참된 현자를 얻으려면 그 사람됨을 바로 보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정법안장>

■ 김두식(취재부 기자)

특별기고

2006 빛고를불교아카데미를 회향하며



저한 준비기간과 추진을 담당할 젊은 청년불자 실무팀의 구성을 통해 대중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했다.

주제 선정에서부터 지역불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으며, 강사 선정에서도 법당이 아닌 일반 대중강연장인 점 등 세 부적인 사항을 고려한 선정, 그리고 진행 시순에서 강의 이외의 불필요한 요소들을 최소화하고 영상물의 활용 등 강연에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등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기획과 전담인력의 구성과 운영이 성공에 중요한 요소가 됐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은 20여 지역불교

지난 2개월간 매주 수요일 저녁이면 빛고를의 무명을 지혜의 빛으로 밝혔던 2006 빛고를불교아카데미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2006 빛고를불교아카데미 개강을 준비하며 모두가 가졌던 불안감을 생각하면, 이번 회향에서 느꼈던 자신감이야말로 아카데미가 우리들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다.

지난해 10월 불교아카데미를 준비하던 시기의 광주지역불교계는 불교대학들의 침체와 몇 년간 대규모 대중법회 동참자 부진 등 불교대중들이 대규모로 동참하는 법회나 교육 과정

의 경험을 비취 볼 때 빛고를불교아카데미의 성공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지난 2년의 빛고를불교아카데미는 광주지역불교계에 많은 긍정적인 성과를 남겼다고 자평하고 있다.

먼저, 그동안 침체되었던 지역불교계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여하는데 기여했고 지역불교 중흥의 기틀이 바로 교육불사임을 확인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지역불자대중들의 건전한 불교 배움의 열기를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년 동안

광주불교 새희망 심는 계기... '교육불사' 중요성 실감

20~30여 지역불교신행단체가 공동으로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신행단체들간의 연대감과 교류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 과정을 통해 지역불교의 일꾼이 될 청년 불자들을 새롭게 발굴했다는 점이다.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다.

2년의 빛고를불교아카데미의 성공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불자대중들의 불교배움의 욕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바로 대중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획이 있다면 대중의 참여는 보장된다는 점이다. 빛고를불교아카데미는 2개월여의 철

신행단체가 모두가 한마음으로 준비하고 성공을 위해 원력을 세우고 역할분담 등을 통해 맡은 바 임무를 다했다는 점일 것이다.

이에 빛고를불교아카데미 참여단체 등은 이렇다했던 지난 가을 밤의 여운을 뒤로 하고 다시 한 번 도약을 위한 준비를 시작할 것이다. 더 오랜 기간의 기획과 준비, 그리고 더 많은 뜻있는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는 탄탄한 연대의 틀을 만들고 지역불자들과 시민들을 또한 번의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 자주 모이고 의논하는 희망의 자리를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해본다.

조영훈(빛고를불교아카데미 실무위원·광주 중심사 사무장)



소금 잘 만난 김치, 효능도 으뜸!!!

일반 김치보다 항암작용이 탁월한 죽염으로 담근 김치는 항암작용효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 병술년은 천태산 황토 맹종죽염으로 김장하실 것을 권합니다. 죽염으로 담근 김치는 처음에는 씹을만한 맛을 느끼지만, 숙성이 되면 최고의 김치맛이 날 뿐더러 항암작용이(정제염 30%, 죽염 66%) 일반김치보다 매우탁월하다고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공급되었던 황토맹종죽염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고자 공장도 가격 그대로를 책정하였습니다.

- 양치, 맛사지 및 김장용 3번구운 황토맹종죽염 380g 1만원 (생활죽염)
● 1000°C 이상 고열로 용융, 제조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리는 체질개선용. 아홉번구운 맹종죽염 (380g 10만원) 주문시 올 바른 죽염 사용법 설명서를 동봉해 드립니다.
● 천태산 죽염 : 전화 055)382-5515, 011-870-3951 / 팩스 055)384-1553

천태산 황토맹종죽염의 實相과 理解

황토맹종죽염이란 본래 대나무 통 속에 천일염을 넣어 구워 만들어내는 민속 향약으로 먼 옛날부터 전해져내려오는 인체의 건강 질병예방과 치료에 널리 응용 되어 온 신비로운 건강식품이다. 천태산 진주도인이 제조하는 천태산 황토맹종죽염은 경남 양산시 원동면 천태산에서 천일기도중에 천태지자 대사의 수기로 진주도인이 신비의 죽염 제조 공법을 더욱 정밀히 개발 심화하여 우리 고유의 음식 궁합논과 연계 그 효능을 극대화하는 데 정열을 모았다.

보편적으로 죽염을 청죽과 엽을 조합하여 제조하는 것으로 단순히 이해하고 있으나 천태산 황토 맹종 죽염은 황토와 송진 첨가는 물론 대나무를 일반적으로 쓰는 왕죽과 분죽이 아닌 특수한 맹종죽을 주재료로 하는데 있다. 위 4가지 물질을 배합하여 1300°C 이상의 고열을 가하여 아홉번을 합성 반복 결정체를 만드는 법제 방식으로 탁월한 공능을 갖는 것으로 정령이 나왔다.

천하절경 성지순례 도량 천태산 천태사 성지순례 오세요.

Advertisement for 'Sungul' (Sungul Kimchi) featuring product images, a testimonial, and contact information. The testimonial states that the kimchi is made with sea salt and has excellent anti-cancer effects. It also mentions that the product is available in 380g and 1000g packages.